

제노레이(122310)

Not Rated

2분기부터 회복될 외형성장

디지털 영상장비 생산 업체

- 제노레이는 치료용·치과용 디지털 영상장비를 생산하는 업체
- 2014년 4월 설립되어 2018년 5월 코스닥에 상장
- 연결 자회사로는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Genoray America, Genoray EU, Genoray Japan이 있음

비수기 영향으로 1분기 매출 정체

-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30억원(+2% YoY), 영업이익 20억원(+1% YoY, 영업이익률 16%)을 기록
- 제품별로는 C-ARM이 5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1%, CT는 29억원으로 23%, PAN은 13억원으로 11%을 차지했으며, 기타는 31억원 기록
- 매출 정체 요인은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

2분기부터 회복될 외형성장

-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640억원(+14% YoY), 120억원(+12% YoY, 영업이익률 19%)으로 예상
- 계절적 성수기인 2분기부터 외형성장이 회복될 전망
- X-ray 시장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디지털 X-ray 수요증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제노레이의 수혜가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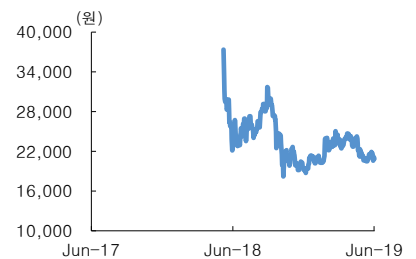
Stock Data

KOSPI(6/21)	2,126
주가(6/21)	20,850
시가총액(십억원)	91
발행주식수(백만)	4
52주 최고/최저(가)	31,700/18,200
일평균거래대금(6개월, 백만원)	1,031
유동주식비율/외국인지분율(%)	66.5/3.9
주요주주(%)	박병욱 외 11 인 30.7

주가상승률

	1개월	6개월	12개월
절대주가(%)	(1.7)	8.6	(9.3)
KOSDAQ 대비(%p)	(4.3)	1.3	3.2

주가추이



	2014A	2015A	2016A	2017A	2018A
매출액(십억원)	29	32	38	44	56
증가율(%)	(6.3)	11.6	20.1	16.2	26.5
영업이익(십억원)	1	3	5	6	11
순이익(십억원)	1	2	3	5	9
EPS(원)	310	648	1,045	1,554	2,407
증가율(%)	118.3	109.0	61.3	48.7	54.9
EBITDA(십억원)	2	4	6	8	13
PER(x)	NM	NM	NM	NM	8.1
EV/EBITDA(x)	NM	NM	NM	NM	5.4
PBR(x)	NM	NM	NM	NM	2.0
ROE(%)	9.5	18.0	24.7	26.4	27.3
DY(%)	-	-	-	-	1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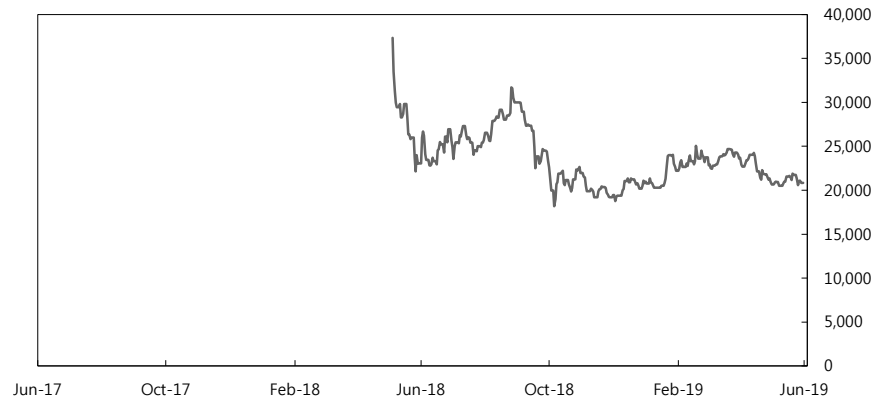
주: 순이익,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

정은영

eunice.jung@truefriend.com

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

종목(코드번호)	제시일자	투자의견	목표주가	괴리율	
				평균주가 대비	최고(최저) 주가대비
제노레이 (122310)	2018.12.21	NR	-	-	-



■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2019년 6월 24일 현재 제노레이 종목의 발행주식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제노레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(코스닥)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.

■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시장 지수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

- 매 수 : 시장 지수 대비 15%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
- 중 립 : 시장 지수 대비 -15~15%p의 주가 등락 예상
- 비중축소 : 시장 지수 대비 15%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
-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

■ 투자등급 비율 (2019. 3. 31 기준)

매수	중립	비중축소(매도)
79.7%	20.3%	0%

※ 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

■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

- 비중확대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높게 가져갈 것을 권함
- 중 립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
- 비중축소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

■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할 수 없습니다.

■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.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■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